



완산구, 민·관 청소년 보호 홍보 캠페인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21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방문해 '청소년 보호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북권리통합지원센터, 완산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가 많이 밀집한 서신동 일대(여울초등학교 인근)를 방문해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품 및 팸플릿 등을 배부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고민상담 전화(1388)를 홍보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김윤상 기자



효자2동, 홀로어르신 위한 안심 야쿠르트 지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김혜숙)은 21일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우), 한국야쿠르트 효자점(점장 이진섭)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홀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안심 요구르트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 야쿠르트 효자점은 동 협의체에서 신청한 70세 이상 복지사각지대 홀로 어르신 18명에게 야쿠르트를 제공한다. 배달원은 주 2회 이상 대상자 집을 방문해 야쿠르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센터에 연락해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원시에 감사패 전달

남원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박용훈)에서 21일 시를 방문해 도내 14개 시군 중 남원시를 '희망 2022나눔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및 감사패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 남원시 사람의 열매 나눔 봉사단 단장(고명철)과 남원시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남원시는 '희망2022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현금 4억9천만원, 물품 3억5천만원, 총 8억4천만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130%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남원시는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지역복지 현안사업비 1,500만원을 지급 받아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각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북체육회, 우수 선수 8명 월드컵스타로 육성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전북 체육의 미래인 우수 학생 선수를 집중 육성·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전북체육회는 월드컵스타 육성 선수 간담회를 열고,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올해 월드컵스타 육성 사업 대상지로 골프와 배드민턴, 수영, 육상, 테니스, 사격, 스키, 양궁 등 8개 종목 8명을 선발했다.

월드스타 육성사업은 우수 선수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체육을 빛낼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수는 골프 안해천(성원고), 배드민턴 김태림(생명과학고), 수영 이서아(전북체육중), 육상 최명진(이리동중), 테니스 조세현(전일중), 사격 조민재(기린중), 스키 최태희(설천고), 양궁 김다희(오수고) 등이다.

이들은 최근까지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발전성과 성장성이 높은 선수들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우수지도자를 초청,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훈련용품도 지원하고 스포츠 심리 밀착·신체트레이닝 훈련 등도 지원하게 된다.

정강선 회장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학생들 아침식사 지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정영택·온누리안과병원장)가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지원금을 통해 선배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21일 총동창회에 따르면 '동창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아침식사'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역시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7일부터 대학 내 편의점 5곳에 학생들이 아침식사로 즐겨 찾는 김밥과 우유, 유산균 음료, 빵 등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일주일 간 무려 1천여 명이 넘는 학생이 아침식사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등 학생들의 호응도 매우 뜨겁다.

동창회의 따뜻한 아침식사 지원 덕분에 든든하게 아침을 맞는다라는 입수빈 학생(스페인중남미학과 2년)은 “평소 아침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다녔는데 등굣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선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게 이처럼 따뜻한 정을 훗날 후배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도 절로 든다”고 말했다.

정영택 총동창회장은 “아침을 먹어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 마음을 가진 동창회 선배배들의 마음을 모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옥정호 상류 수변정화활동 실시

K-water 섬진강범지사(정용배 지사장)와 정읍권지사(최기선 지사장)는 2022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1일 섬진강범 상류 하천인 추령천과 구절초(거마리)에서 수변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전북생명의 숲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옥정호로 유입되는 추령천 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민·관이 협동하여 옥정호의 물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편, K-water 섬진강범지사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옥정호의 수질보전 및 물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수변정화활동과 오염발생원 조사를 하고 있고, 정읍권지사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용배 지사장은 “옥정호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한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섬진강 상하류와 동진강 유역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물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시자본센터, 미안마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단법인 전주자본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21일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마련한 사랑의 장학금 500만 원을 전주지역 미안마 유학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장학금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정규일)가 후원한 300만 원, (주)유익골즈(대표 박예나)와 전주연안은행(대표 윤국준)이 매년 함께하는 소의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기탁한 장학금 20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총 10명의 미안마 대학생에게 5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황의욱 전주자본봉사센터 이사장은 “힘든 상황에도 지원해주신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미안마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효사랑병원 사회사업단, 거마공원 방역소독 실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도리사회사업단(단장 한진국)은 지난 19일 삼천1동 주민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거마공원 주변을 청소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김정연 이사장은 “봄을 맞아 운동과 산책이 늘어난 삼천1동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 연합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공공장소 및 취약계층을 위해 청소 및 방역 봉사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효도리사회사업단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직원들의 기부문화로 만들어진 사업단으로 꾸준한 취약계층과 소외 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 및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